

담양군 “AI 활용 ‘어르신 청춘’ 되살려 드립니다”

담양군문화재단, 이번달부터 가사문학면 일원 ‘담양애’ 진행
현재 얼굴 기반 젊은 모습 복원...액자 제작·아카이브 구축 등

AI 기술로 어르신들의 청춘을 되살린다.
담양군이 노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담양애(爰)청춘’을 가사문학면 일원에서 5월부터 진행한다.
(재)담양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가사문학면 65세 이상 어르신 약 5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청춘 시절을 복원하고, 그 기억을 문화예술로 재해석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지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담양애(爰)청춘’은 기

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시니어 히고 프로젝트로, 개개인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중심으로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AI 청춘복원 사진은 어르신의 현재 얼굴을 기반으로 AI 분석을 통해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복원해 주는 서비스로, 감동적인 개인 맞춤형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복원된 사진은 액자 제작은 물론 마을 아카이브 구축, 결과물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공유된다.
또 AI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해 어르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도 자신의 삶을 글로 풀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아련한 청춘의 기억을 예술적 감성으로 언어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군은 프로젝트 작업으로 나온 ‘나의 인생 명언’이나 회고록 형식의 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후손들과 세대 간 공감을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어르신 목소리로 전해지는 삶의 이야기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 따뜻한 울림을 주며 사라져 가는 기억을 문화자산으로 보존하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어르신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복지 모델로 AI 기술을 통해 과거의 청춘을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여정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가사문학면을 시작으로 이후 담양 읍·면으로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문화회관 전경.

장흥 물축제, 베니스 카니발과 ‘세계화’ 힘 모은다

이탈리아 조직위, 장흥군 방문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 합의

장흥군은 지난 28일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 조직위원회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가적 협력체계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협약식은 김성 장흥군수, 마씨모 안드레올리 베니스 카니발 조직위원장, 안남일 고려대학교 교수, 서진성 케이티폴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남진 장흥 물축제와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가적 협력체계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양측은 축제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교류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에 합의했다.
장흥군은 업무협약을 통해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케이 페스트 2025에 참가해 물축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장흥군청에서 김성 장흥군수, 마씨모 안드레올리(Massimo Andreoli) 베니스 카니발 조직위원장, 안남일 고려대학교 교수, 서진성 케이티폴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청에서 국제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제공>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된 인연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 분야의 폭넓은 교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씨모 안드레올리 위원장은 “내년 2월 베니스 카니발에 물축제 관계자를 공식 초청해 베니스에 한국문화와 물축제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비여신·황박이와 춤을 ... ‘함평나비축제’ 동심 만발

6일까지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

함평나비대축제에서 나비를 주제로 한 퍼레이드쇼가 매일 펼쳐지고 있어 어린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나비, 황금바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5월6일까지 이어지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에서 매일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 기획과 연출은 지난해에 이어 송원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문복주 교수가 맡았다.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는 나비의 문 광장에서 나비여신, 나비요정과 황박이·뽀미 등이 노래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관광객과 함께 중앙광장까지 행진한다.
이어 중앙광장을 무대로 나비캐릭터, 나비여신, 나비요정, 미러맨&젤렌, 레이디스, 에너지티맨이 순서대로 30여 분간 공연 후 관람객과 사



함평나비대축제에서 선보이는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

진촬영 시간을 갖고 있다.
퍼레이드쇼는 ▲5월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30분 ▲5월2일 오후 2시30분 ▲5월3일 오전 11시30분 ▲5월4일 오후 2시30분 ▲5월5일 어린이날과 5월6일에는 오전 11시30분과 오후 2시30분에 개최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 함평나비대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가 특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축제 기간 꼭 방문하시어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쇼를 포함한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 과학 인재 양성

장성군-광주과기원-고교 교장단
교육발전특구 운영 협의체 구성

장성군이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들을 교육자문관으로 위촉하고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한중 장성군수와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총장 및 교수진, 장성지역 고교 교장단 등 10여 명은 장성군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장성군은 ▲지역 돌봄 책임제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문무(文武) 특화인재 육성 ▲배우고 일하며 함께 사는 장성 구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기



장성군이 지스트 지역고교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성공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왼쪽부터 임기철 총장, 허필원, 양성 교수, 김한중 장성군수, 정용화 대외부총장. <장성군 제공>

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재관 교수(의생명공학과)와 양성·허필원 교수(기계로봇공학)는 교육자문관으로 위촉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스트, 고교와 함께 장성

만의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미래형 인재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 개별주택 가격 전년비 1.81% 상승

1만4281호 가격 결정 공시...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화순군이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1만 4769호 중 무허가 주택 포함 488호를 제외한 1만 4281호의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81% 상승했다.
화순군은 적절한 주택 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2025년도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ice.kr)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일정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구현진 화순군 재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과세자료 및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라며 “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숲에서 자연과 함께 창의성 키워요

나주시, 어린이집 등 대상 11월까지 유아숲 체험원 교육 진행

나주시는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빗가람호수공원 유아숲 체험원 교육을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유아숲 체험원은 빗가람동 배매산 일원 2만 7000㎡에 조성한 자연 친화적 놀이시설로 숲속 놀이터, 곰·다람쥐 등 동물 캐릭터 의자,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전문 산림교육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가 상주하며 숲속에서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봄꽃 생김새 관찰과 씨앗 심기 등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원우들과의 사교성,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아숲 체험원에는 총 266회에 걸쳐 4365여명이 찾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빗가람 호수공원 유아숲 체험원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며 정서를 함양하는 공간으로 가꾸며 양질의 유아숲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 10개 마을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나주시보건소 ‘정신건강행복마을’ 지정...정신건강 선별 검사 등

나주시가 지역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마을 중심의 노년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주시보건소는 나주시노인복지관과 협력해 관내 10개 마을을 ‘정신건강행복마을’로 지정하고 최근 마을별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등을 비롯한 노년기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우울증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우울증 예방 수검예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마을 경로당을 거점으로 이장과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해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감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1-339-4850)로 문의하면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강용곤 나주시 보건소장은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 치매노인·발달장애인 실종 선제 대응

경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0여명 대상 위치추적 장치 보급

나주경찰서와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해 스마트태그 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 태그는 위치추적 장치로 보호자의 휴대전화와 연동시켜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기기다. 실종 이력이 있는 치매노인 등 100명을 대상으로 나주시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신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종 예방,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석진 나주경찰서장은 “스마트태그 보급으로 실종예방과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